

한국보건행정학회 30주년

박윤형¹ · 박은철²

¹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²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Yoon Hyung Park¹, Eun-Cheol Park²

¹President,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heonan; ²Editor-in-Chie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Korea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KAHPM) is on its 30th anniversary in 2018. The KAHPM is the first academic society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nd it has maintained its significance for 30 years as a representative academic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Korea. During 30 years, the KAHPM has sought to establish and develop academic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nducted academic discussions on the agenda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times and on the health policy issue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and discussed the healthcare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is scheduled to hold a 30th anniversary academic conference and to prepare the 30th history book of the KAHPM. The official journal of KAHPM,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PM) will be publishing a special issue with important topics with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commemoration of its 30th anniversary. Based on 30 years' experiences, the KAHPM and HPM will be committed to furthering the next 30 years and endeavoring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by establishing and practicing desirable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Keywords: 30th anniversary;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8년 한국보건행정학회는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보건행정학 분야의 최초의 학회이며, 보건행정, 건강증진, 건강보험, 의료정책, 병원관리 등을 포괄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학회로 그 중요성을 30년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988년 7월 19일 국립보건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출범하였다[1]. 첫 번째 학술대회는 같은 날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보건행정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창립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두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 59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보건행정학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첫 번째 학술대회(1988. 7. 19) 주제가 보건행정학의 과거, 현재, 미래였고, 국민의료와 정부의 역할(제6회, 1991. 6. 28),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규제와 경쟁(제15회, 1995. 12. 1), 보건의료정책과 매스미디어전략(제17회, 1996. 11. 22), 보건의료정책결정 메커니즘의 현

황과 개선방향(제26회, 2001. 6. 1),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제27회, 2001. 11. 30-12. 1),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개혁 모색(제39회, 2007. 11. 1-2) 등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술적 토의를 진행하였다. 대기업의 병원산업의 참여(제13회, 1994. 11. 30), 2000년 의료사태의 교훈(제25회, 2000. 12. 8-9), 우리나라 의약분업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교훈(제28회, 2002. 6. 17),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실천전략(제32회, 2004. 5. 28),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한미 Free Trade Agreement(제37회, 2006. 11. 23-24),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 및 급여정책 개선방안(제40회, 2008. 5.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와 과제(제43회, 2009. 11. 19-20), 보건행정과 세계화(제48회, 2012. 6. 1-2),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한 보건의료체계 정비(제55회, 2015. 11. 4-5), 건강보험 40주년, 미래를 준비하다(제58회, 2017. 5. 25-26) 등이다.

Correspondence to: Eun-Cheol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1862, Fax: +82-2-392-8133, E-mail: ecpark@yuhs.ac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보건행정학회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토의를 진행하였다. 199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제9회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정당의 보건정책’이라는 주제로 민주자유당 송두호 국회의원, 민주당 양문희 국회의원, 통일국민당 문창모 국회의원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제29회, 2002. 11. 29-30)의 주제로 한나라당 이원형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 국민통합21 변재환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토론이 있었다. 제49회 학술대회(2012. 11. 16)에서는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였다. 국회 손학규 의원의 ‘한국보건정책 과제와 진로’(제26회, 2001. 6. 1),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방향’(제30회, 2003. 5. 30),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제42회, 2009. 5. 29), 보건복지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의 ‘신종플루 사태로 바라본 우리나라 전염병관리체계의 현재와 미래’(제43회, 2009. 11. 19-20),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의 ‘MB정부 하반기 보건의료정책방향’(제44회, 2010. 6. 11),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주요과제’(제59회, 2017. 11. 3) 등이다.

한편,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991년 10월부터 보건행정학회지를 발간해오고 있다[2]. 1992년부터 연간 2호씩, 1999년부터 연간 4호씩 발간하고 있다. 보건행정학회지는 1999년 7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였으며, 2004년 1월부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이다. 2013년 3월에 보건행정학회지의 영문명을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에서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로 변경하였다. 보건행정학회지는 2017년 12월 말까지 27권째, 91호째, 714편의 논문과 21편의 편집인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보건행정학회지는 우리나라 보건행정학의 전문성과 역사성에 있어 대표적인 학회지로 자리잡고 있다.

30주년을 맞이한 한국보건행정학회는 3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보건행정학회 30년사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행정학회지에서는 3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호를 발간하고자 한다. 이 특별호에서는 보건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에 대해 30년간의 교훈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을 게재하고자 한다.

2018년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이립(而立)이 되었다.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서 학문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의미로 30년을 이립이라 하였다. 그리고 큰 변화의 시대였던 한 세대를 지냈다. 많은 학술적 업적을 이루었고, 학회의 위상 또한 높다. 이를 토대로 보건행정학회와 보건행정학회지는 다음 30년을 향해 더욱 정진하여 바람직한 보건행정학의 정립과 실천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기를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REFERENCES

1.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ternet]. Wonju: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ited 2018 Feb 28]. Available from: <http://www.kshpa.org/>.
2.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ternet]. Wonju: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ited 2018 Feb 28]. Available from: <https://kshpa.jams.or.kr/>.